

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'광전총국' 업무협의 출장결과 보고

2011. 12. 27 / 전략시장지원팀

1. 출장개요

- 가. 명 칭 : 한국콘텐츠진흥원-광전총국 업무협의 출장
- 나. 일 정 : 2011. 12. 14 ~ 12. 15 (1박 2일)
- 다. 장 소 : 중국 북경
- 라. 목 적 : 한중 공동제작, 중국채널 방영 등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협의
- 마. 출 장 자 : 이재웅 원장, 성임경 팀장

2. 출장내용

- 가. 한·중 공동제작 등 콘텐츠 관련 협력사업 제안
 - KOCCA의 사업 소개와 협력 가능한 사업 제안
 -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등 한·중 교류와 협력에 대한 의견 교환
- 나. 한국 콘텐츠의 중국내 배급 협력 요청
 - 해외 콘텐츠에 대한 중국내 배급허가 담당기관인 광전총국에 한국 콘텐츠 배급 협조 요청
- 다. 중국의 콘텐츠산업 현황 청취,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

3. 결과와 의의

- 가. 한·중 공동제작과 배급 등 양국의 교류, 협력을 위한 광전총국의 정책과 가능성에 대한 확인
- 나. 양 기관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향후 지속 협력의 발판 마련

4. 세부일정

- 14일 : 북경 도착, 콘텐츠 업체 간담회
- 15일 : 광전총국 업무협의, 북경 출발

일자	시간	내 용	비고
12.14(수)	09:05-10:25	○김포 → 북경	KE 2851
	12:00-17:00	○콘텐츠 업체 간담회(오찬 포함)	중국사무소
12.15(목)	13:30-15:30	○광전총국 업무협의 - 공동제작, 중국시장 진출 관련 협의	광전총국
	17:00-17:30	○한국 애니메이션 쇼케이스 참관	한국문화원
	21:25-00:20	○북경 → 인천(익일 도착)	KE 854

붙임1 회의록 : 광전총국 업무협약

회의록

회의 일시	2011. 12. 15(목)	회의 장소	광전총국 회의실
회의 시간	13:30 - 15:30	회의록 작성자	성임경
회의 참석자	[한국 측] KOCCA 이재웅 원장, 성임경 팀장, 중국사무소 강만석 소장, 남궁영준 대리, 이미지 주임 [중국 측] 광전총국 김덕룡 선전관리사장 등 8인		
회의 제목	한·중 애니메이션 공동제작/투자와 중국내 배급 협력 제안		
세 부 회 의 내 용			
<p>○ 한·중 수교 20주년 기념 공동사업 제안(KOCCA)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2년은 한·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이를 기념하여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 큰 의미가 있을 것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중국기업이 기획/제작하는 애니메이션을 한국기업과 공동으로 추진 · 한국기업이 기획/제작하는 애니메이션을 중국기업과 공동으로 추진 - 공동제작한 작품은 양국에서 주요 방송시간대에 방송할 수 있도록 협력 <p>○ 제안에 대한 의견(광전총국)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간 공동제작에 대해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KOCCA의 제안은 양국의 교류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인 - 애니메이션 산업과 방영허가에 관하여 광전총국의 심사과정 등 내부적인 규칙이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더 고민해야 하겠지만 좋은 해결방안을 찾아볼 생각임 - 과거에 ‘삼국지’ 라는 작품에 대해 광전총국이 공동제작을 허가해 준적이 있었음. 이유는 내용이 중국적인 요소와 정서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방영 당시 호응도 좋았음 - 그 외에 이탈리아, 미국 등과도 공동제작을 진행하는 작품이 있음 - 단시간에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겠으나 외교부의 의견 등 종합적인 고려를 하고 원장님의 제안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 보겠음 <p>○ 합의사항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간 교류가 매우 필요하며 원장님의 제안과 두 기관간의 만남의 자리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 - 양국은 좋은 소재를 갖고 있으며 각국의 강점을 살려서 공동제작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에 동의함. 앞으로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연구하는 것이 좋겠음 			

○ 산업 관련 의견 교환 / 기타 :

- 중국은 한국의 문화와 창의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. 특히 ‘한국의 대통령 문화산업 육성’ 과 관련한 중국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문화산업의 개념에 대해 매우 상세히 알고 계신데 대해 놀랐고 깊은 인상을 받았음
- 중국도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매우 많고 지원도 하고 있음. 그러나 아직 질적 수준이 높지 않고 한국에 비해 몇 년 뒤쳐져 있다고 판단됨
- 지원규모 면에서 보면 오히려 중국이 한국보다 큰 것으로 생각되며 중국의 강점은 소비인구, 기업수, 작품 생산량이 많다는 것임

붙임2 회의록 : 콘텐츠 업체 간담회

회의록

회의 일시	2011. 12. 14(수)	회의 장소	중국사무소 회의실
회의 시간	12:00 - 17:00	회의록 작성자	성임경
회의 참석자	[KOCCA] 이재웅 원장, 성임경 팀장, 중국사무소 강만석 소장, 남궁영준 대리, 이미지 주임 [업계] 김준영 김스라이선싱 대표, Amie COMMIXMIX 대표, 정치광 3D 애니메이션 대표, 문혜숙 KEBEN 대표		
회의 제목	중국 애니메이션 산업현황과 진출 전략		
세 부 회 의 내 용			
<p>○ KOCCA 지원사업 소개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KOCCA의 지원은 정책적인 지원이므로 큰 액수는 아닐 수 있으나 투자와는 달리 지원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님 - 애니메이션의 경우 우수 애니메이션 시리즈에 대해 5~7억 가량 지원 가능함 - 제작지원과는 별도로 투자도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효과를 높임 <p>○ 중국의 산업, 규제관련 의견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의 애니메이션은 편당 25분, 총 52편으로 주로 구성됨 - 중국도 최근 국가간 합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처럼 애니메이션 산업에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해왔음 - 애니메이션의 배급 관련해서는 광전총국에서 심사를 하고 있음. 내부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하는데 자국의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이 일차적인 고려 대상이며 특히 중국적인 요소가 들어간 작품이 허가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됨 - 중국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작품은 많이 보기 어려웠고 미국 등 타 국가의 작품이 시장을 지배해 왔음 - 중국의 애니메이션은 양적, 질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세계적인 수준과 비교할 때 아직 낙후되어 있음. 중국정부 차원에서 산업 육성을 위해 많이 투자할 것으로 생각됨 - 중국 정부는 ‘기업이 할 일은 기업이 하는 것’ 이라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산업을 육성할 것이므로 이를 이해해야 하고 정부 차원의 협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만남과 협의를 통해서 거리를 좁혀 나가야 함 			